

영화 '장사리' 반공 아닌 반전영화...곽경택이 담은 진정성

인천상륙작전 D-1 평균나이 17세 772명의 학도병 이야기

한국전쟁 비극 생생히...대립보다 희생에 대한 메시지 전달

인천상륙작전 D-1. 이명준(김명민 분) 대위가 이끄는 유격대와 전투경험이 없는 학도병들을 데온 문산호가 장사리 해변에 상륙한다. 평균 나이 17세, 훈련기간 단 2주에 불과했던 772명 학도병들이 약천후 속에서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총알을 맞으며 전쟁 한 가운데로 뛰어든다.

영화 '장사리: 잊혀진 영웅들'(감독 곽경택 김태훈/이하 '장사리')이 그리운 한국전쟁의 비극은 이렇게 시작된다.

영화 초반은 인천상륙작전의 양동작전인 장사리상륙작전에 투입된 학도병들의 치열했던 전투 장면으로 실화의 비극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장사리상륙작전은 북한군의 이목을 돌리며 후방을 교란하려 펼친 기밀작전. 희생이 큰 작전이었으나 기밀에 부처진 탓에 인천상륙작전에 가려지고 잊히게 된 역사이기도 하다.

문산호는 상륙하면서 태풍을 만나 좌초되고, 바다를 헤엄쳐 해변에 이른 학도병들은 방탄모가 아닌 교모를 쓴 채 낡은 장총과 부족한 탄약만을 갖고 전투에 나선다. 장사리 해변에 상륙하는 과정에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게 되지만, 이후 이명준 대위와 학도병들은 북한군의 보급로를 차단하는 등 막중한 임무를 어렵게 성공시킨다.

하지만 사흘치의, 최소한의 식량만으로 6일간 버텨야 하는 등 위기가 계속되고 만다.

곽경택 감독이 연출한 '장사리'는 기존 전쟁영화와는 다른 영화적 문법을 택했다. 안타고니스 트를 철저히 배제한 것. 곽경택 감독이 제작사 태원엔터테인먼트에서 처음 건넰받았던 시나리오에는 인민군 대장 역할이 있었지만, 곽 감독은 이를 과감하게 삭제했다.

"학도병들의 희생에 관한 이야기지만 인민군 대장을 죽이는 과정이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었다"고 판단해서다. 이 때문에 '장사리'에서는 한국전쟁을 둘러싼 대립관계보다는 이로 인한 무고한 희생에 대한, 반전의 메시지가 전면에서 전달된다.

장사리 해변에 상륙한 뒤 북한군의 보급로를 차단하는 임무를 수행한 뒤에는 학도병들의 드라마가 이어진다. 학도병 분대장 최성필(최민호 분)의 가슴 아픈 사연부터 에이스 학도병 기하룡(김성철 분)과 기하룡을 따라 열혈결에 학도병에 지원한 국만득(장지건 분), 가장 출중한 사격 실력을 지닌 이개태(이재욱 분), 가족을 위해 자신의 성별을 숨기고 입대를 지원한 문중녀(이호정 분)까지 여러 인물들의 서사가 몽글하게 만든다.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드라마가

아닌, 다수의 학도병 이야기를 다루고자 한 곽경택 감독의 고심이 느껴진다. 또 학도병들 개개인 캐릭터에는 곽 감독 부모 세대에서 공감할 지점들이 많다는 점도 돋보인다.

전쟁영화는 흔히 '국뽕영화'라는 선입견을 갖고 보게 만들지만, '장사리'는 "희생된 분들 덕분에 평화가 있다"는 곽경택 감독의 말처럼 학도병들의 희생에 대한 헌사가 느껴지는 작품이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 잊힌 영웅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는 주연 김명민의 진심도 고스란히 담겼다.

할리우드 배우 메간 폭스의 존재감도 강렬하다. 메간 폭스는 모든 참상을 기록한 중군 기자 메기 역으로 분했다. 메기는 성공 확률이 희박한 장사리상륙작전에 어린 학도병들이 투입된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 그들을 구하기 위해 힘쓴다.

분량이 많지 않지만 실존인물인 마가렛 히긴스와 마가렛 버크 화이트로부터 영감을 받아 탄생한 만큼, 드라마 곳곳에서 존재감을 남겼다. 25일 개봉.



차예련, '우아한 모녀' 출연 확정...초고속 복귀



배우 차예련이 '우아한 모녀'로 안방극장을 찾는다. 오는 11월4일 처음 방송되는 KBS 2TV 새 일일 드라마 '우아한 모녀'(극본 오상희, 연출 어수선)는 엄마에 의해 복수의 도구로 키워진 한 여자가 위험한 사랑에 빠지고 마는 치명 멜로 드라마로.

차예련은 극 중 한유진 역할을 맡았다. 한유진은 불 같은 열정을 가슴에 품고 있는 엘리트 중의 엘리트이자 엄마의 복수를 위한 길 작품. 차예련은 이번 드라마에서 최명길과 역대급 '모녀 케미'를 예고해 기대를 모은다.

뉴스1

방탄소년단 '피땀눈물' MV, 5억뷰 돌파



BTS (방탄소년단) '피 땀 눈물 (Blood Sweat & Tears)' Official MV

조회수 500,000,251

동산 8번째 '韓 최다'

그들 방탄소년단의 '피 땀 눈물' 뮤직비디오가 5억뷰를 돌파했다.

2016년 10월 발매한 방탄소년단 정규 2집 '윙스(WINGS)'의 타이틀곡 '피 땀 눈물' 뮤직비디오

는 25일 오전 9시 22분경 유튜브 조회수 5억 건을 넘었다.

이로써 방탄소년단은 8억뷰 'DNA'를 비롯해 6억뷰 '불타오르네 (FIRE)', 5억뷰 'FAKE LOVE', 'MIC Drop' 리믹스, 'IDOL', '쩨어', '작은 것들을 위한 시 (Boy With Luv) feat.

Halsey', '피 땀 눈물'까지 5억뷰를 넘긴 8편의 뮤직비디오를 보유하게 됐다. 이는 지난 8월 '작은 것들을 위한 시 (Boy With Luv)'로 세운 한국 가수 최다 5억뷰 뮤직비디오 기록을 자체 경신한 것이다.

'피 땀 눈물'은 파워풀한 에너지와 그루브가 돋보이는 곡으로, 유혹을 만난 소년들의 갈등과 성장을 담았다. 뮤직비디오는 세련된 영상미와 멤버들의 퍼포먼스가 조화를 이뤄 (눈이 넘는 길이에도 전 세계적으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방탄소년단의 뮤직비디오는 'Save ME'가 4억뷰, '낫 투데이(Not Today)', '상남자'가 3억뷰, '봄날', '호르몬 전쟁'이 2억뷰, 'I NEED U', 'Danger', '하루만', 'We Are Bulletproof Pt.2', 'RUN', 'Serendipity', 'Singularity', 'No More Dream' 등이 1억뷰를 넘었다.

구혜선 측 "안재현에 귀책 사유 이혼소송 반소 계획" 주장



배우 구혜선(35)이 이혼 소송과 관련해 안재현(32)에 대해 반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4일 구혜선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리우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안재현씨가 구혜선씨를 상대로 서울 가정법원에 9일 이혼소장을 접수했고, 구혜선씨에게 18일 송달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구혜선씨는 여러 차례 가

정을 지키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했으나, 이렇게 소송까지 제기된 마당에 가정을 더 이상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했다"라며 "이제는 구혜선씨 본인을 지키기 위하여, 그리고 혼인관계 파탄의 귀책사유는 안재현씨에게 있다고 판단돼 조만간 답변서와 함께 안재현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의 반소를 서울 가정법원에 접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혜선의 법률대리인 측은 "위 소송에서 구혜선씨는 그동안 주장한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들을 모두 제출하여 소송을 진행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구혜선은 현재 남편 안재현과 이혼과 관련해 갈등을 빚고 있다.

광주만의 고유함과 독특함을 가진

광주 상설 국악 한마당

광주광역시

일시 2019. 3월 ~ (매주 토요일 17:00)

장소 광주 공연마루(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시민로 3)

내용 시민과 함께 어울려 즐기는 전통, 퓨전 등 다양한 국악공연

문의 광주문화예술회관 (062-613-8351, 062-613-3181)
※ 관람료 무료